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4. 4. 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4월 3일 14:00 ~ 15:02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이 형 주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유 재 훈 위 원

유 상 대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4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4년도 제6차 및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4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4년도 제6차 및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76호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77호 『NH농협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78호 『DB생명보험(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79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 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농협생명보험(주) 등 3개사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이 안건은 보험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음. 보험의 경우에는 설계사에 의해서 보험계약 체결 권유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다시 보험계약을 확인해서 성립시키는 두 개의 과정이 있음. 앞 단계의 설명의무, 즉 보험설계사가 행하는 설명의무는 금소법으로 가서 금소법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보험회사는 설계사들이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확인하는데 그것이 일명 해피콜임. 보험업법상의 과징금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부과하는 것이 이중적 제재가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논의도 있었음. 더 나아가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같이 부과하는 것이 이중제재가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고, 과징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과태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징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동의가 있으셨음. 다만, 해피콜이 전체 설명의무에서 앞단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 그리고 뒷단에서 확인으로써 설명,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을 봐서 과징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운영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음. 이번에 저희가 어차피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과징금과 과태료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음. 이상임.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0호 『**홍국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홍국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1호 『**코어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코어자산운용(주)**에 대해 자본법상 과태료를 부과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2호 『○○○○○○○○○○○○(주) 및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권유를 함으로써 공모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을
제재하는 내용

○ (위원) 저희가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했던 것이
'수사기관 통보'에 대해 증선위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긴급성이 인정되고
내부 협의절차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증선위와 협의를 하는
개선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음.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논의가 되었던 것이 주선인으로서 (주)□□□□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주)□□□□이 주선인으로서 사적화해에
의해서 자율배상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증선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했음. 저희가 라임펀드 때 내부통제위반에 대해서, CEO
제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을 했다고 해서
CEO에 대해 감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것이고
또 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제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량감경이
된다는 합의에 도달이 되었음.

- (위원)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법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화해와 관련된 감경사유에 대한 증선위 결정이 향후 운영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 결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재절차와 관련된 기준, 정립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향후 대형사건 등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3호 『(주)나이스디앤비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주)나이스디앤비의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제83호 안건 (주)나이스디앤비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것은 기술신용평가의 핵심을 저해하는 행위지만,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평가를 의뢰하는 은행의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원안 16억 5,000만 원에서 7억 9,200만 원으로 감경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소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은행이 기술금융을 의뢰하면서 관대한 등급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감경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84호 『서울신용평가(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제이원홀딩스(주)가 제출한 서울신용평가(주)의 대주주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9호 『(주)카사코리아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 심사안』, 의결안건 제85호 『신한카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정비 기간 연장안』, 의결안건 제86호 『(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의결안건 제87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의결안건 제88호 『(주)카카오페이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의결안건 제89호 『하나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24년도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0호 『(주)KB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의결안건 제91호 『(주)KB국민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의결안건 제92호 『농협금융지주(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의결안건 제93호 『농협은행(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의결안건 제94호 『(주)신한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의결안건 제95호 『(주)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의결안건 제96호 『(주)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의결안건 제97호 『(주)우리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의결안건 제98호 『(주)하나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의결안건 제99호 『(주)하나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 지주·은행)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023년 제출)을 승인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3호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정화 지원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감독방향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4호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관련 정보처리 위탁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 방안을 보고하는 내용

○ (위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함. 이 건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인적·물적 요건 정비와 상장, 상폐 관련된 것, 정보공시와 관련된 이런 기준들이 먼저 세팅되고 그것들이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위탁될 수 있는지가 정의가 되었어야 했는데 앞단 거래소와 관련된 규제나 규율

사항이 없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나 가능한 빨리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할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음. 그런데 가능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 (위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금융위, 금감원 실무자들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 중으로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방향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진행경과를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과 금융위 금융혁신과가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한 5월정도 즈음에 중간 경과라든가 내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finalize) 하기 전에 방향성에 대해서 정례회의에서 승인(endorse)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겠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금융위원회 제6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2분 폐회)